

# 선택의 토대와 거부의 소통

## 안녕들 하십니까 현상과 루만의 체계 이론적 커뮤니케이션

**김영빈**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한혜경**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무규**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이 연구는 루만의 체계 이론을 통해, 2013년 12월에 발생한 ‘안녕들 하십니까?’(이하 안녕들) 현상을 분석했다. 루만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은 타아에 의해 선택된 정보와 선택된 전달을 자아가 선택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시작하고 성립된다. 이때 이해는 내용의 수용과는 별개로, 그것은 후속 커뮤니케이션의 쟁점이다. 이처럼 선택을 토대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설명은 안녕들 현상에 잘 적용되며, 아울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해석을 심화시킨다. 특히 안녕들 현상이 가져오는 후속 커뮤니케이션의 파생에 대한 해석을 위해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적절하다. 안녕들 현상은 ‘안녕하지 못한 정치’에 대해 특정한 의미를 발생시키며 후속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자기 생산적 체계다. 아울러 반박 대자보나 심지어 대자보 훼손 행위도 안녕들 현상이 발생시킨 ‘안녕하지 못한 정치’에 대한 부정을 야기하는데, 이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대자보는 안녕들 체계의 ‘안녕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일반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자보 훼손은 안녕들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관찰될 수 있다. 안녕들 체계는 대자보를 통해 사회에 더 나아간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후속 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한다.

**KEYWORDS**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니콜라스 루만, 체계 이론, 커뮤니케이션.

---

\* gwp999bin@naver.com

\*\* hancon@pknu.ac.kr 교신저자

\*\*\* mooq@pknu.ac.kr 공저자

## 1. 서론

2013년 12월 10일, 고려대학교 정경대 후문에 주현우가 “안녕들 하십니까?(이하 안녕들)”라는 제목의 두 장짜리 대자보를 붙였다. 주현우의 대자보는 당시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언급하며 20대에게 ‘안녕들 하신지’를 물어 보았다. 며칠 뒤 13일에는 성균관대, 서울대, 강원대에 차례로 주현우의 대자보에 화답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이후 고려대에만 50개가 넘는 대자보가 붙었으며, 2014년 1월 10일까지 안녕들 페이스북 북에 올라온 대자보만 640여 개였다. 안녕들 페이스북은 14일에 2만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으며, 20일엔 그 수가 26만으로 증가했다.

대학가에서 출발한 대자보 열풍은 정치적 주제는 물론 성매매 여성의 이야기나 성소수자의 사회적 시선에 관한 문제, 김치녀나 된장녀로 상징화되어 20대 여성을 폄훼하는 남성적 사고에 대한 비판, 중앙대 청소부들의 파업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어졌다. 안녕들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그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등장하였다. 15일, 경북대에서 주현우 대자보를 반박하는 대자보가 게시되었으며, 17일에는 고려대에도 반박 대자보가 붙었다. 주현우 대자보와 그것에 화답한 대자보에 반대하는 몇몇은 대학가의 대자보를 훼손시키기도 하였다.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서는 이것을 ‘대학 찢!’이라고 표현하며 대자보 찢기를 인터넷 게시판에 인증하며 지지하였다(〈오마이뉴스〉, 2013, 12, 18). 〈뉴스1〉(2013, 12, 27)에 따르면 대자보를 훼손한 최 모는 붙이는 게 의사 표현이라면 떼는 것도 의사 표현이라며, 자신들의 행위 또한 의사소통의 한 형식이라고 주장했다.

대자보를 이용한 폭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안녕들 현상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사회 각 분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주현우의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수사적 표현에 주목한 관점(〈경향신문〉, 2013. 12. 12; 〈중앙일보〉, 2013. 12. 27; 〈광주일보〉, 2014. 1. 23), 대자보라는 매체에 주목한 관점(김민하, 2014; 〈뉴스y〉, 2013. 12. 21), 또는 둘을 함께 보는 관점(이화영, 2014)과, 처음 대자보를 붙인 주현우라는 개인에게 주목한 관점(〈한겨레〉, 2013. 12. 15; 〈머니투데이〉, 2013. 12. 17), 대자보의 수신자에 대한 관점(〈조선일보〉, 2014. 12. 14.; 〈환경일보〉, 2013. 12. 19; 〈경향신문〉, 2013. 12. 30.)도 있었다. 이러한 관점들에서 특징적인 점은 발신자 - 메시지 - 매체 - 수신자로 이어지는 선형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

1) 일베에서 대자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은어로서 ‘대자보를 확 찢자’의 준말이다.



그림 1. 안녕들 현상 당시 고려대학교에 게시된 대자보들

러한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로 그 현상을 모두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탄력적이고 복잡한 현상을 모두 포괄하는 이론이 대자보를 붙이거나 찢는 행위도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우선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이론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성을 띠고 있으며 그 기저에는 관찰지점에 관련된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였고, 여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 메르텐(Merten, 1976, p.170, 김무규, 2012, 재인용)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은 아직도 협소한 테두리 안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역동적인 개념에 비해 아직 정적이고 유형론적인 도식은 [...] 여러 대상을 단순화하고 인식적 현상들의 특성을 밝혀내기 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은폐시킨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론 역시 단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루만에 의하면,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전문지식도 그만큼 더 복잡해진다. 그렇기에 사회과학의 통일성은 이론이나 대상의 개념이 아닌 순수한 복잡성으로 나타난다.”(Luhmann, 1984/1995, p.xlvi)

안녕들 현상은 사회의 복잡성, 곧 커뮤니케이션이 차이를 통해 스스로를 구별지며 스스로 더 복잡해지는 경향을 잘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히

메시지를 공유하거나, 설득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단순히 생각하면 안녕들 현상은 처음 대자보를 쓴 주현우의 치밀한 수사법이나 매체 선택, 그리고 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작용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안녕들 현상의 복잡성을 선형적 모델의 요소 중 하나인 주체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복잡성을 관찰하는 데 더 나은 전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한 달의 대자보 열풍 뒤 사그라진 안녕들 현상의 효과를 반문할 때, 그 대답의 웅색함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녕들 커뮤니케이션을 선형적 정보 모델로 이해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의 복잡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녕들 현상은 상호주관성을 전제로 한 합의의 과정으로 보기도 힘들다. 안녕들 현상은 철도 파업과 같은 사회적 갈등과 인접한 정치적 주제는 물론 여성 비하, 성소수자 차별, 성매매자 인권, 비정규직의 현실, 교육 현실 등 언제나 새로운 주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며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선 '대확찐'이라고 명명된 대자보 훼손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합의 과정이 아닌 문제제기로만 지속된 안녕들 현상의 커뮤니케이션을 합의에 전제되는 의견의 다양성이 표출된 것이라고 이해할지라도 대자보 훼손은 합의 모델이 소화하기 어려운 일탈 행위로 배제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대확찐 또한 사회에서 발생한 커뮤니케이션임은 분명하며, 이러한 일탈적인 행위가 오히려 안녕들 현상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커뮤니케이션을 의미 전달이나 상호 이해로 파악하는 모델은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서 논한 두 모델로부터 비켜나 안녕들 현상을 루만의 체계 이론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루만 체계 이론의 특성을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사회의 구성 요소에서 인간을 배제하는 대신 커뮤니케이션을 그 자리에 놓은 것이다. 사회는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통해 구분되는 여러 사회적 체계들로부터 다르게 관찰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총체다. 그리고 안녕들 현상도 그것의 환경과는 분간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차이 짓는 사회적 체계다. 따라서 안녕들 현상이 보여 주듯 호행난주하는 주제의 다양함이나 대자보를 훼손하는 행위조차도 안녕들이라는 사회적 체계의 자기 생산을 통해 관찰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아야 한다.

서론에서 이 연구의 모티브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그것을 구체화시켜 보도록 할 것이다. 1장 서론에서 안녕들 현상에 대한 루만의 체계 이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2장에서는 루만의 체계 이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안녕들 현상 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 현상의 분석에 앞서 루만의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안녕들 현상 분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작동 원리와 그것의 함의를 밝히고자 하는 데 특히 대자보 매체의 일반화된 상징성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우선 안녕들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으로 그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들을 개괄하고 이후에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장 결론에서는 연구를 마무리하며 루만 이론의 비판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울러 논할 것이다.

## 2. 루만의 체계 이론과 커뮤니케이션 이론

### 1) 자기 생산하는 사회적 체계의 작동 및 관찰과 자기 관계<sup>2)</sup>

루만의 이론은 간략히 말하면 “사회=사회적 체계=커뮤니케이션”(김성재, 2005, 6쪽)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부터 조직 내 의사결정, 국가 간 외교, 시장의 화폐 흐름까지 모두 커뮤니케이션이다. 루만에게 사회적 체계의 작동이란 커뮤니케이션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르면 안녕들 현상 또한 커뮤니케이션이며 사회적 체계다. 루만은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체계(soziale systeme)를 상호작용, 조직, 사회(Gesellschaft) 그리고 항의 운동으로 분류하는데, 특히 사회는 모든 사회적 체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체계로서 특별하다.

그래서 “루만이 가장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를 ‘인간들의 모임’으로 정의하는 상식적인 견해다.”(이철, 2013) 인간은 사회 밖의 환경에 위치할 뿐이다. 물론 그것이 인간에 대한 무가치를 뜻함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커뮤니케이션만이 사회의 구성 요소가 될 수

---

2) 루만이 아직 한국 사회에 생소한 만큼, 루만의 저서를 번역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루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역어들이 있는데, 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Selbstreferenz’와 ‘Mitteilung’이 문제가 된다. ‘Selbstreferenz’는 장춘익(2013), 정성훈(2014) 등이 ‘자기 지시’를 주로 사용하고, 노진철(2000), 서영조(2013), 이철(2011), <사회의 법>(윤재왕, 2013) 등 많은 경우가 ‘자기 준거’를 쓴다. 김성재(2005)는 ‘자기 관계를 쓴다. 루만의 <사회적 체계들>에서는 ‘Selbstreferenz’를 “Beziehungen zu sich selbst herzustellen”(Luhmann, 1984, p.31), “die Einheit, die ein Element, ein Prozeß, ein System für sich selbst ist”(Luhmann, 1984, p.58)라고 설명한다. 곧,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요소, 과정, 체계로서 단위”를 의미하기에 이 연구에서는 ‘자기 관계’라는 역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용하고자 한다. ‘Mitteilung’을 <사회의 사회>(장춘익, 2012)와 김성재(2005), 이철(2013) 등은 ‘전달’로 정성훈(2009a, 2009b, 2013)은 ‘통지’로, <사회체계이론>(박여성, 2008)과 이철(2011)은 ‘통보’를 사용하고 있다. 루만은 커뮤니케이션의 ‘옮김(Übertragung)의 은유’를 반대하는데,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Mitteilung’에 관한 번역어는 모두 루만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감안하고 이 연구에서는 부족하지만 ‘전달’이란 역어를 채택해 사용하기로 한다. 역어 선택에 큰 도움을 주신 이 연구의 심사위원회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있는가? 오래 전 뒤르켐(Durkheim, 1892/2001, 53~54쪽)은 “나 자신과 나의 행위 바깥의 법률과 관습에 규정된 의무를 행하는 것”이란 말로 인간 심리와 주관으로부터 자율적인 ‘사회적 사실’에 주목하였고 루만 역시 그 맥을 잇는다. 그러한 사회적 사실로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루만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뿐이다.

인간과 사회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된 생명체의 물질대사는 모체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듯이 사회 역시도 인간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작동방식이 있다는 것이 루만의 입장이다. 따라서 그는 인지생물학자 마투라나와 바렐라가 정식화한 자기 생산(Autopoiesis) 개념에 기초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기 생산하는 체계로 사회를 파악한다. 그렇다면 체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작동(operation)을 통해 자신을 환경과 차이 지으며 자기를 생산한다. 즉, 체계는 “자신의 폐쇄성을 기초로 환경에 대해 개방적으로 작동하는”(Luhmann, 1997/2012, 125쪽) 것이다. 환경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다. 세포가 물질대사를 통해 환경과 자신을 차이 짓는 것처럼, 사회적 체계 역시 커뮤니케이션 작동을 통해 체계/환경의 경계를 긋는다. “체계의 경계는 작동 방식과 작동의 구체화된 모습 외의 다른 것이 아니며, 이것이 체계를 개체화한다. 경계는 체계의 형식이고, 그것의 다른 쪽 면은 그렇게 해서 환경이 된다.”(Luhmann, 1997/2012, 102쪽) 그래서 사회적 체계가 의식 체계와 구별되는 것은 그것만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의식 체계와 구별되는 사회적 체계의 창발적(emergent) 질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체계의 작동은 폐쇄적이고 항상 자기 관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항시 새로운 요소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성으로부터 자기 관계성은 모든 체계의 작동의 조건(Luhmann, 1981/2001, 43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루만(Luhmann, 1984/1995, p.446)은 “모든 자기 생산에서 필요한 자기 관계는 항상 ‘동반하는’ 자기 관계이며, ‘오직 자기 자신에만 관계한다’는 의미에서의 순수한 자기 관계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체계의 작동들은 자기 연관성만이 아니라 동시에 환경 연관성을 갖는다(장춘익, 2014). 체계의 작동에서 환경 연관성은 타자관계로 나타난다.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커뮤니케이션하므로 ‘타자’와 관계 맺지만,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은 자기와 관계 맺으며 진행된다. 이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자기 관계는 타자와 ‘동반하는 자기 관계’(mitlaufende Selbstreferenz)이다. 그러므로 “관계(Referenz)의 개념은 그것을 관찰개념에 근접시키는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Luhmann, 1984/1995, p.439).” 아울러 “관계와 관찰의 개념, 즉, 자기 관계와 자기 관찰의 개념은 하

나의 구별을 작동 과정으로 포착하기 위해 도입된다.”(Luhmann, 1984/1995, p.440)

이철(2013)은 루만 이론의 핵심을 “① 루만의 체계는 (구별)작동과 관찰(작동)을 기본 단위로 구축된다. ② 작동과 관찰은 서로 맞물리는 순간 서로를 지탱하며 체계를 구축한다”고 정리하며, “③ 관찰은 직전의 작동에 묶인 채 그것을 관찰한다.”의 세 가지로 간추린다. 즉, 관찰은 “구별의 맥락에서 지칭을 구별”(이철, 2013)함이다. 모든 구별은 두 면을 가지며, 지칭은 구별의 두 면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때 구별 그 자체는 두 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맹점이다. 모든 관찰은 맹점을 가지지만, 맹점은 관찰을 관찰하는 이차 관찰에 의해 관찰될 수 있다. 하지만 이차 관찰 역시 관찰이므로 맹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관찰에 의한 대상과 주제의 의미는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즉, 의미 선택에서 중요한 작동은 관찰(구별 그리고 표시)에 따른 차이다.

## 2)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선택: 정보, 전달, 이해

그렇다면 의식 체계와는 분별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사회적 체계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커뮤니케이션으로 양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은 당연하게 들리지만, 논리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달성될 것인지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김무규, 2012). 인간의 의식 체계는 닫혀 있으므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거나 본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파슨스(Parsons)에 따르면, 타아가 그 행위를 자아가 행위 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자아가 그의 행동을 타아에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어떤 행위도 일어날 수 없다.”(정성훈, 2009a) 커뮤니케이션을 메시지나 정보의 ‘옮김’으로 본다면, ‘암흑상자’와 ‘이중의 우연성(doppelte Kontingenz)’의 논리적 문제는 미결로 남는다.

이 문제를 루만(Luhmann, 1984/1995, p.105)은 일반 체계 이론의 ‘잡음으로부터의 질서 원리’를 통해 풀려 한다. “잡음이 없다면 체계도 없다. 하지만 이 조건 아래서(아무리 짧거나, 갈등이 많은 간에) 질서의 성립은 정상적이다. 자신의 행위를 확립하는 이에게 이중의 우연성이 경험되고, 그래서 양측에서 우연적인 자아/타아-배치가 산출될 수 있다면 말이다.”(Luhmann, 1984/1995, p.116) 다시 말해 이중의 우연성은 기대 구조를 통한 ‘구조화된 복잡성’으로 전환될 때 비개연성을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다. 기대 구조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사회적 체계의 요소인 커뮤니케이션의 임의적 연결 가능성에 대한 제약이다. 커뮤니케이션의 관여자 각자가 자신의 기대를 제약해 구조에 맞추지 않는다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은 진행될 수 없다. 이러한 체계의 고유한 구조는 오직 고유한 작동을 통해서만 구축되고 변경될 수 있다(Luhmann, 1997/2012, 121쪽). 다시 말해 체계는 닫혀 있고 자기 관계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즉 A가 B를 통해 B가 A를 통해 규정되기 때문

에, 모든 우연적 사고, 모든 충격, 모든 오류는 생산적이게 된다(Luhmann, 1984/1995, p.116). 즉, 암흑상자들의 안은 영원히 어둡지만 역설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토대가 된다. 자아와 타아의 행위는 기억되고 관찰될 수 있으며, 그것이 재귀적으로 반복된다면 적어도 교류를 위한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사회는 인간들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만남의 필연적인 산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루만의 명제는 바로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서영조, 2013). 그렇다면 의식 체계와 구별되는 사회적 체계의 창발적 작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선 커뮤니케이션을 두 사람 간의 메시지 교환이 아닌, 정보, 전달, 이해 세 가지 선택의 통일성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로써 각각의 선택은 우연적이기에 항상 다르게도 구성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앞선 두 선택을 포함하는 이해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발신자가 정보와 전달을 선택하더라도 수신자가 그것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은 성립할 수 없다. 그 때문에 루만은 통상적 표현과 달리 수신자를 자아(Ego), 발신자를 타아(Alter)라고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자아의 이해로부터 시작되며 동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정보에 대해 루만은 “어떤 선택적 사건(그것이 내부든 외부든 간에)이 체계 안에서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즉 체계의 상태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언제나 어떤 정보가 발생”(Luhmann, 1984/1995, p.40)한다고 본다. 또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차이들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정성훈, 2009a). 정보는 체계의 내부 상태 또는 외부의 자극에서 유발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부 상태나 그 외부 자극 자체가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체계의 구조를 통해 체계 상태를 변화시킬 차이가 될 때 정보가 된다. 그러므로 정보의 선택은 타아에 귀속되지만,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변화시키는 차이가 되려면 전달로부터 정보를 구별하는 자아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보의 발생은 자아의 이해에 의해 가능해진다.

전달 또한 타아의 선택에 기초한다. 전달은 필연적으로 정보와의 차이를 통해 선택되며 그것은 메시지와 방법의 선택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달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 행위와 결부된다. “이해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타아는 의미 있는 정보의 담당자와 그 정보의 전달에 대한 책임귀속이 이루어지는 행위자라는 두 지점으로 구별되는 것이다.”(정성훈, 2009a) 정보와 전달 행위 사이의 차이만으로도 광범위한 분석 가능성이 성립된다(Luhmann, 1984/1995, p.141). 자아는 타아의 전달이 정보와 차이이며, 동시에 전달 선택을 통해 신호하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가 전달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보와 전달의 간격은 이것을 구별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즉 이중의 우연성에 따른 것이

다. 자아는 타아의 전달을 통해 그 정보를 유추할 뿐이고, 결국 자신만의 정보를 산출해야만 한다. 정보는 옮겨지지 않는다.

자아의 이해 역시 선택이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세 번째 동작에서 거꾸로 이루어진다(Berghaus, 2011/2012, 120쪽). 커뮤니케이션의 창발은 오직 정보와 전달의 차이가 관찰되고, 기대되고, 이해되고, 연결 행동의 선택에 근거가 될 때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해는 다소 광범위한 오해를 정상적인 것으로 포함한다(Luhmann, 1984/1995, p. 141). 오해는 자아가 타아가 되어 다음 단계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때 드러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수정될 수는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두 관여자 사이에 투명한 이해란 불가능하다.

이제 정보, 전달, 이해 선택을 요소로 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일단락되었지만, 그것은 곧 후속 커뮤니케이션과 연결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차이를 만든다. 여기에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들이 연결되면서 체계의 경계가 세워지고, 절단을 안정시킨다(Luhmann & Fuchs, 1989/2014). 이때 이해 선택이 앞선 커뮤니케이션과 후속 커뮤니케이션의 연결 고리가 된다. 자아가 타아로부터 정보와 전달을 분별하여 그 의미 제안을 내용적으로 이해할 때, 이것은 타아의 정보 선택에 상응하는 동작이다. 이것은 후속 커뮤니케이션의 첫 선택인 정보 선택이며, 자아는 타아로 위치 이동한다. 따라서 사회적 체계는 자신의 작동인 커뮤니케이션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재귀적으로 작동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자기 관계적 체계가 된다.

### 3) 의미와 기대구조, 매체/형식

앞에서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는데, 모든 것이 선택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의미 교환이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에 대해 루만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라는 것의 작용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을 하는데, 이에 대해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체계가 의식 체계와는 구별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작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끼리 메시지를 주고 주고받는다든가 은유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그것은 여러 체계 유형 중에서 의식 체계와 사회적 체계는 ‘의미(Sinn)’를 보편 매체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루만에게 의미는 “무- 차이적(differenzlos) 개념이라는 위상을 갖는다”(정성훈, 2009a). 의식 체계나 사회적 체계들에게 대상이나 주제가 되는 어떤 것도 세계 지평 안에서 의미적으로만 존재하기에, 우리는 사회적 체계를 의식 체계와 분리해 사고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의미는 안녕들 현상을 사회적 체계로 설명하려는 이 연구가 논해야 할 부분이다.

다른 모든 매체<sup>3)</sup>와 마찬가지로 의미는 선택을 조종한다. 특정한 의미 결정이 실현될 때 그것은 ‘현행화’되고, 결정되지 않은 다른 것은 ‘잠재화’한다. 즉, 의미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정보처럼 의미 역시 그것을 구성하는 것은 관찰자의 몫이지만, 그렇다고 자의 적일 순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의미 할당은 세 가지 근본적인 구별 기준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른 관찰자들 역시 그렇게 나의 관찰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태적 차원은 이것/저것의 구별에 따라, 시간적 차원은 이전/이후 구별에 따라, 사회적 차원은 자아 관점과 타아 관점에 따라 구별한다. 모든 의미 할당에는 이 세 의미 차원이 개입하며, 항상 긍정/부정의 이중 지평이 포함된다. 의미의 현행성은 ‘이것 - 지금 - 함의’로 조합되며, 그 좌우로 뻗어가는 지평들은 사태적, 시간적, 사회적 차원 각각에서의 잠재성을 보여 준다. 즉, 각각의 차원에서의 긍정/부정은 다른 차원의 긍정/부정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

의미의 현행화/잠재화는 루만이 설명하는 다양한 매체/형식 일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김무규(2013)는 루만의 매체를 “상대성(Relativität) 혹은 우연성(Kontingenz)”과 “미디어의 형식(화)[Form(ulierung) des Mediums]” 그리고 “미디어와 형식의 차이(Medium/Form Differenz)”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세 가지는 표현만 다를 뿐 하나의 논리, 의미를 설명하던 현행화/잠재화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즉, 매체/형식의 차이는 느슨한 연결(loose Koppelung)/츄츄한 연결(strikte Koppelung)의 차이를 관찰하는, 즉 구별의 지칭이라고 볼 수 있다. 매체와 형식은 각각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어떤 것이 관찰되어 현행화된 것(=형식)과 동시에 잠재화된 것(=매체)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의미가 “현행화된 것을 다시 잠재화시키고 잠재되어 있던 것을 다시 현행화시키는 끊임없는 자기 운동(정성훈, 2009a)”이라면 이런 자기 운동 속에서 의미의 ‘동일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상징적 일반화’를 통해 가능하다. 루만은 “상징/상징적이란 개념은 통일성 형성의 매체를 표시하며, 일반화라는 개념은 다양한 작동들을 통일적으로 취급하는 기능(Luhmann, 1984/1995, p.93)”으로 설명한다. 의미의 상징적 일반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체계의 기대구조와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체계의 구조는 요소가 다음 요소로 나아갈 때 그 연결 가능성을 제약하는 것인데, 이처럼 연결 가능성을 제약하는 개념을 기대(Erwartung)라고 한다. 예를 들어 A가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라는 질문에 B가 “C랑 헤어질 거야.”라고 답한다고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물론 기대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대가 반복되어 어긋

3) 루만에게 매체는 보편 매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언어와 확산 매체로서 문자, 인쇄 매체, 전자 매체 그리고 성공 매체로서서 권력, 화폐, 진리, 신앙, 사랑, 법 등 문명적 표준이 된 기본 가치들이 있다.

나선 사회적 체계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언어 매체는 기본적으로 상징적 일반화를 통해 “모든 의미의 지시 구조를 주어진 의미 상황이 전망하는 바를 제시하는 기대들로 응축”하고, “구체적 상황에서 필요하고 입증 가능한 기대들은 일반화를 낳고 일반화를 바로 잡는다.”(Luhmann, 1984/1995, p.94) 즉, 점심 메뉴를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 점심과 관련된 것으로 의미의 지시 구조를 응축시켜야 하지만, 앞서 예처럼 B가 C와 헤어질 거란 대답을 한다면 A는 “웬 엉뚱한 소리야?”처럼 구체적 상황에 필요한 기대의 일반화를 바로 잡는다. 그런데 B가 “아니, 내 말을 좀 들어 봐. C가 어제…”라며 커뮤니케이션의 기대 구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일반화를 낳는다.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그 과정은 서로 순환적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물론 B가 A에게 C와의 관계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선 A가 B와 C의 연애 사실을 알고 들어 줄 것이란 기대가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엉뚱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도 의미 안에서 기대되며 지속된다.

또한 하나 주목할 것은 A가 B에게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라는 커뮤니케이션이 A와 B에게 다르게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A에게 그것은 점심을 먹자는 제안이지만, B에게 그것은 C와의 연애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동일한 커뮤니케이션이라도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르게 관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의식 체계들의 관찰이 서로 다를지라도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자기 생산과는 무관하다.

### 3. 루만의 체계/환경 이론을 통한 안녕들 현상 분석

#### 1) 선행연구 검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2013년 안녕들 현상 관련 국내 연구를 루만의 체계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안녕들 현상을 다룬 선행연구의 수는 많지 않았다. 이를 분류하면 안녕들 대자보의 매체 성격이나 그 표현 양식에 주목한 연구(김민하, 2014; 이화영, 2014)나 안녕들 현상과 만평의 기능을 분석한 연구(박경철, 2014), 안녕들 현상의 사회적 의의에 대해 분석한 연구(주현우, 2014), 안녕들 현상에서 드러난 성소수자와 여성 문제를 분석한 연구(밀사, 2014), 만평과 사회 비판 기능을 안녕들 현상을 통해 분석한 연구(박경철, 2014)가 있다.

안녕들 현상의 특징 중 하나가 대자보를 통한 확산이기에 대자보 관련 국내 선행연구도 살펴보았으나, 그 수 역시 많지 않았다. 1970~1980년대 대학가의 주요한 소통 매체로

서 활용되던 대자보의 위상을 생각해 본다면 이동신·손순덕(1988)의 연구 외에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힘들다. 아마도 대자보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것을 연구 자료로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리고 양승목(2009)이 언급처럼 1970년대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의 풍토는 외국의 최신 이론이나 경향을 소개하는 것에 급급했고, 1980년대 부상한 비판언론학 역시도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소개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당시 한국 커뮤니케이션학 풍토에서 대자보를 연구하는 것은 여러 의미로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안녕들 현상과 직접적 관련성은 적지만 20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이란 관점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연구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루만 이론을 통해 촛불집회를 분석한 연구로는 노진철(2009), 문정환(2009)의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가 루만의 위험사회론 관점에서 촛불시위와 정치체계를 분석하였다면, 이 연구는 안녕들 현상의 특징을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안녕들 현상이 지니는 함의가 지니는 특수성에 집중하였는데, 이 연구는 그러한 함의가 도출된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 2) 안녕들 현상과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선택

안녕들 현상에서는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주제의 다양함으로 말미암아 매스 미디어와 같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의제화되지 못했던 함의들이 도출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한 주제가 논의되었다는 사실보다 독특한 소통 방식으로 다양한 주제들이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다양함 때문에 루만 이론의 적용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주현우의 대자보는 2013년 12월 10일 즈음 주현우가 사회를 그에게 의미 있는 정보로 관찰한 결과다. 사회에는 주현우가 의미 있게 관찰한 정보 소재들이 잠재되어 있었다.

어제 불과 하루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이 직위해제된 것입니다. ... 수차례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 국가 기관의 선거 개입이란 초유의 사태 ...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떡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 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 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 직을 내놓은 하 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주현우 대자보”,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2014), 39~40쪽<sup>4)</sup>

앞의 인용처럼, 철도 파업과 직위 해제, 국정원의 선거 개입, 밀양의 고압 송전탑 문제와 주민의 자살, 쌍용자동차 노조 문제 등은 모두 있었던 사건들이다. 하지만 그것은 주현우 대자보가 현행화될 때 정보로서 관찰된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는 ‘이렇게’ 잠재된 정보의 재료들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자보 1”은 주현우와 비슷한 시기에 대자보를 작성했음에도 선택한 정보가 확연히 다를 수 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더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논란,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군 당국에 비난과 폭언을 일삼고 있는 하 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감히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 외에 이런 것들 또한 분명히 우리의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대한 학우 분들의 목소리는 크고 높는데 후자에 대해서는 외면, 무관심, 침묵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자보 1”, 〈조선일보〉, 2013. 12. 17.<sup>5)</sup>

“대자보 1”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한·중 방공식별구역 논란, 북한의 위협이란 정보를 선택했다.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현행화된 정보 선택은 고유한 의미 지평을 구축한다. “정보의 선택성은 그 정보의 선택적 주의력과 관련되어서만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한 요인이다”(Luhmann, 1984/1995, p.140). 그러므로 주현우 대자보의 정보는 특정한 관점의 선택 지평에 의해 구성된 정보일 뿐이다.

전달 역시 선택이다. 타이는 선택한 정보 중 기대에 반응하거나 반응을 기대할 만한 것을 선택하여 전달한다.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이러한 기대와 반응의 비대칭을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율한다.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관여자가 구성할 수 있는 정보는 사실상 무한하기에 그것은 기대 구조를 통해 그리고 매체를 통해 축소되어야 한다. 안녕들 현상에서 그것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인사말과 ‘대자보’라는 매체/형식을 통해 축소된다. 이와 같은 복잡성의 축소는 동시에 복잡성을 증대시킨다. 바둑이 아주 간단한 규칙(복잡성 축소)을 통해 매우 다양하게 진행(복잡성 증대)되는 것처럼, 안녕들 커뮤니케이션 체계 또

4) 이 연구에서는 게시자가 자신의 이름을 명기한 대자보일지라도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다. 다만 “주현우 대자보”는 매스컴을 통해 널리 공개되었다는 점과 그것이 안녕들 현상과 관련한 특수성 때문에 게시자의 이름을 표시했다.

5) 〈조선일보〉(2013. 12. 17).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 속 고대 첫 반박 대자보 ‘이게 정의인가?’”

한 ‘안녕?’과 ‘대자보’란 매체/형식을 통해 잠재되어 있던 정보를 구성하여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증대하는 데 무리 없도록 한다. 그러므로 안녕들 대자보 각각의 내용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그것이 ‘안녕?’과 ‘대자보’를 전달의 매체/형식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안녕들 현상의 후속 커뮤니케이션으로 관찰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대자보’와 ‘안녕?’이란 두 형식은 안녕들 현상이란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전달 행위로서 기대된다.

그리고 자아가 타아의 정보 선택과 전달 선택의 차이를 이해할 때, 한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이 성립한다. ‘나’는 주현우의 대자보가 철도 파업, 철도 민영화, 부정선거, 밀양 송전탑, 쌍용자동차 노조 등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의 인사였다고 관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어디까지나 ‘나’의 이해라는 점이다. 나는 주현우 대자보의 정보는 ‘사회적으로 무관심한 20대에게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대자보’라는 형식이나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은 전달로서 그 차이를 구별한다. 여기서 나는 결코 대자보를 쓴 주현우의 생각을 알 수 없다. 이중의 우연성은 극복될 수 없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창발한다. 이 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후속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생긴다.

### 3) 안녕들의 의미 제안에 대한 예/아니오와 후속 커뮤니케이션

이해는 타아의 정보 선택과 전달 선택을 분별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일단락된 것뿐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해가 타아가 전달한 의미 제안에 대한 내용을 또한 선택해야 한다. 이 네 번째 선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은 후속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된다. 이때 모든 의미 지평이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긍정/부정에 할당하듯, 여기서도 ‘예/아니오’는 선택될 수 있다. 하지만 예/아니오는 후속 커뮤니케이션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뿐만 아니라 ‘아니오’라는 대답 역시 “커뮤니케이션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의 구조(제한된 가능성들의 선택)를 바꾸게 하여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연계 능력을 갖게 되고, 이로써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한다.” (김성재, 2005, 95쪽)

철도 노조 파업을 지지 안하고, 밀양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고, 제주 해군 기지 건설에 찬성 하면 깨어 있지 못한 대학생 취급을 받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깨어 있는 대학생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사회문제에 무관심하면 무조건 깨어 있지 못한 대학생입니까? 사회문제? 충분히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못한데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까?

“대자보 2”, 〈국민일보〉, 2013. 12. 15.<sup>6)</sup>

‘안녕들 하십니까?’가 불쾌하게 느껴졌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지 못하다면 더욱 다행입니다. 안녕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외치는 비판의 인사였으니 불편했겠지요. … 우리의 비판은, 이것을 접한 사람들이 불쾌했다면 왜 불쾌한지, 우리가 왜 비판했는지,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대화’하려는 시작의 인사입니다. 우리가 민영화와 파업만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이라면, 당신께서는 타인의 일을 외면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맞습니다.

“대자보 3”,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2014), 227-228쪽.

“대자보 2”는 주현우 대자보의 내용 제안에 대해 반대하고, “대자보 3”은 “대자보 2”의 내용 제안을 또 다시 반대한다. 이 두 편의 대자보처럼 커뮤니케이션은 ‘예’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커뮤니케이션은 ‘아니오’에 대한 ‘아니오’를 통해서도 연결된다. 이것은 단순히 의견이 충돌할 때의 커뮤니케이션 상황만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커뮤니케이션을 ‘예’나 ‘합의’의 도출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흥미로운 사실은 화용론적 언어 사용으로 특정 논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한 하버마스의 생각으로 위에서 언급된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행위를 중시하는 하버마스의 경우에 “상호 이해 행위를 통해 매개된,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Habermas, 1981/1997, 411쪽)을 통한 합의를 커뮤니케이션의 고유한 동기로 상정하고 모든 의사소통적 행위에 적용해야 할 유효성 요구들에 결부시켜 예/아니오의 차이를 비대칭화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동의/합의를 커뮤니케이션의 고유 동기로 보고 의미 제안의 거절을 회피하고 수긍을 선호한다.”(김성재, 2005, 82쪽) 하지만 합의의 추구는 의식 체계에게 해당될 뿐, 사회적 체계인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의 기준도 목적도 아니다. 루만에게 합의는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이 의식 내에서 혹은 커뮤니케이션 내에서 아직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정성훈, 2009a) 사회적 체계가 다루는 의미 지평에서는 오히려 불일치가 두드러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사회적 의미 지평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언어라는 매체는 상호 이해를 통한 합의를 담보하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거부와 불일치를 쉽게 하는 매체이며, 수용과 합의의 개연성은 언어를 기본으로 한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해 높아진다.”(정성훈, 2009a)

6) <국민일보> (2013. 12. 15). “첫 등장한 ‘안녕들’ 반박 대자보… 경북대생 ‘당신들은 틀렸다’”.

분석을 위하여 안녕들 현상의 커뮤니케이션을 정보 선택, 전달 선택, 이해 선택으로 분별하였지만, 커뮤니케이션은 정보 선택과 전달 선택의 차이를 분별하는 이해의 선택이 통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즉, 정보, 전달, 이해는 “구별과 지칭의 구별(이철, 2013)”이라는 사회적 체계의 작동 요소의 요소다. 그것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은 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야 비로소 사회적 체계로서 다른 의미를 사용하는 체계로부터 관찰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된다. 대자보를 읽고 붙인 이보다 그냥 읽고 넘어간 이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이 하나의 단위로 끝을 맺느냐, 후속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지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견해와 달리 안녕들 현상에서 주현우의 대자보보다 그것을 연결한 후속 대자보들이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작동에 더 중요하다.

루만에게 사회의 모든 현상은 곧 사회적 체계, 커뮤니케이션 체계다. 사회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체계라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이해’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장춘익, 2013). 그러므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 체계로서 또 다른 기대 구조를 만든다면, 사회가 그것을 관찰하며 이해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기에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대 구조를 가진 사회적 체계를 관찰한 체계는 자기 관찰의 맹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이차 관찰의 가능성 빈도를 더 높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4) 안녕들 체계와 대자보 훼손 분석

안녕들 현상의 대자보가 보여 준 주제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대자보 2”처럼 안녕들 현상에 반박한 대자보의 등장은 개연적이다. 그리고 앞선 분석에서처럼 ‘아니오’가 커뮤니케이션을 종결시킬 수는 없으며, ‘예/아니오’는 커뮤니케이션의 수행과 방향을 설정할 뿐이다. 그렇다면 대자보를 찢는 행위는 주현우 대자보가 제안한 의미 수용을 과격한 방식으로 거부한 커뮤니케이션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자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대자보를 붙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런데 이 연구는 대자보 훼손 행위를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분석하면서, 사회적 사건을 개인이란 단위로 환원해 접근하는 시선과 거리를 두려한다. 그것은 사건의 책임에 대한 사회성마저도 개인이란 개념을 사용해 희석시킨다. 그러나 개인으로 지칭되는 의식 체계의 작동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추측될 뿐, 암흑상자는 여전히 겹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대자보 훼손을 개인의 비이성성이나 미성숙함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시각 대신 안녕들 체계의 커뮤니케이션 차원으로 접근한다. 먼저 대자보 훼손이 왜 발생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현우 대자보와 대자보 훼손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최초 대자보인 주현우 대자보는 “지금 안녕하지 못한 20대”에게 안녕을 묻는다. 그런데 주현우 대자보가 ‘우리’라고 표현한 20대는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로 물러

나 계신” 20대다. 여기서 ‘정치’는 주현우 대자보에 기술된 철도 파업 등의 사회문제로 구성된 의미다. 따라서 주현우 대자보가 ‘우리’라고 호명한 20대는 주현우 대자보가 의미 제안한 ‘정치’에 ‘안녕하지 못한’, 다시 말해 의미 제안을 수용한 20대며, 이들의 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치에 안녕하지 못한’ 안녕들 체계는 자기 관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의 자기 관계는 타자를 동반하므로 주현우가 의미 제안한 ‘정치’에 ‘안녕한’, 즉 의미 제안을 거부한 20대는 타자 관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따라서 대자보 훼손은 주현우 대자보가 구성한 ‘정치’에 대한 반박임은 당연한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대자보를) 완전 한쪽 입장에서만 치우쳐서 다 써놓은 거다. 마치 이번에 뭔가 이렇게 해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것처럼 되게 거창하게밖에 안보였다.

“대자보 4”, 〈경남도민일보〉, 2013. 12. 18.<sup>7)</sup>

대자보 내용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과 논리적 비약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실 내용을 전혀 모르는 학우가 읽기엔 한쪽 정당의 메시지를 과하게 담고 있어, 지극히 선동적이었습니다. 또한 학내에 승인받지 않은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이유로 누군가가 대자보를 붙일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찢을 권리도 있다 생각했고 과감히 찢어버렸습니다. 소통의 목살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대자보 5”, 〈국민일보〉, 2013. 12. 19.<sup>8)</sup>

그런데 주현우 대자보 이후 전개되는 후속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사회적 주제들을 상기한다면, 왜 ‘정치’ 주제만이 유독 대자보를 훼손하는 행위로 발전한 것일까? 이는 한국 사회의 정치 양극화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정치를 주제로 한 커뮤니케이션은 합리적이라기 보단 비합리적으로 쉽게 진행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나 성소수자의 현실을 주제로 한 대자보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굳이 그것을 훼손하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자보를 훼손한 “대자보 4”와 “대자보 5”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가?

제 의사표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긴 했는데 몇몇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사실 커질 거

7) 〈경남도민일보〉(2013. 12. 18). “나와 다르면 약 대자보 훼손, 욕설 잇따라”.

8) 〈국민일보〉(2013. 12. 19) “찢는 행동도 소통 한성대 ‘안녕들’ 대자보 훼손 영상 찍은 ‘일베’의 항변”.

라고 생각을 안했다.

“대자보 4”, 〈경남도민일보〉, 2013. 12. 18.

지금 저를 향해 비난하는 손가락들이, 저의 정치적 견해를 향하는 것인지, 저의 과격한 의견 표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요. 전자라면 저는 당당하고, 후자인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보냅니다.

“대자보 5”, 〈국민일보〉, 2013. 12. 19.

“대자보 4”와 “대자보 5”는 자신들의 대자보 훼손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커뮤니케이션한다. 이러한 모순적 행위는 그들이 대자보 훼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훼손을 선택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안녕하지 못한 정치’에 ‘아니오’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으로서 대자보 훼손이 반박 대자보와는 다른 차이로서 관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녕들 체계는 안녕들 대자보라는 매체가 상징적으로 일반화되며 자기 생산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다.<sup>9)</sup> 즉, 우리는 대자보를 통해 사회의 다른 커뮤니케이션과 안녕들 커뮤니케이션을 구별하며, 개별 대자보가 전달하는 정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 ‘안녕하지 않음’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매체로서 의미를 일반화한다. 따라서 주현우 대자보의 정치적 의미 제안에 반대하는 대자보 또한 안녕들 체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충분히 관찰된다. 즉, 안녕들 체계의 일반화된 의미는 대자보를 통해 상징되고, 반박 대자보 또한 대자보이기에 안녕들 체계에 포함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관찰될 개연성이 높다.

물론 반박 대자보는 ‘안녕하지 못한 정치’를 자기 관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안녕들 체계의 의미 제안에 ‘아니오’를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점에서 여타 대자보와 다르다. 그러나 대자보란 매체가 지닌 소통 일방성과 정치 주제가 내포하는 진영 논리에 의해, 반박 대자보의 ‘안녕하지 못한 정치’에 대한 ‘아니오’ 커뮤니케이션은 ‘예’를 커뮤니케이션하는 대자보들에 의해 다시 반박되거나 오히려 ‘예’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더 강화시킨다. 앞서 ‘예/아니오’의 후속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분석에서 보았듯이, 성공 매체가 아닌 대자보 매체는 커뮤니케이션이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만 수용하도록 선택을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

9) 표현은 유사하더라도 안녕들 체계의 매체인 대자보는 기능 체계들의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다르다. 언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매체는 이미 상징적 일반화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는 기본적으로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매체처럼 코드의 긍정값(예)/부정값(아니오) 사이에서 거절이 아닌 수용을 강제하는 비대칭적 매체가 아니다.

치 주제와 관련한 두 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은 끊임없이 서로의 차이만을 확인하며 안녕들 체계 내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관찰될 뿐이다.

따라서 반박 대자보만으로는 안녕들 체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아니오’를 커뮤니케이션할 수 없다. 구별은 안녕들 체계가 ‘안녕하지 않음’을 커뮤니케이션한다는 기대를 상징적으로 일반화하는 대자보 매체를 훼손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래서 대자보 훼손은 안녕들 체계 자체를 부정하며, 그것에 포함을 거부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다소 거칠지만 정치 체계와 그 성공 매체인 권력에 비유하자면 반박 대자보가 여당에 대한 야당의 반박이라면, 대자보 훼손은 권력이란 매체를 부정하며 정치체계 자체에 저항하는 아나키즘적 커뮤니케이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안녕들 체계로부터 대자보를 훼손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분화된다. 대자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하는 안녕들 체계 구조로는 대자보를 훼손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화는 결국 대자보라는 커뮤니케이션매체를 관찰한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그렇다면 대자보 훼손에 대한 후속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대자보를 찢는 사람과 그것을 막는 학교, 그리고 비난하는 언론에 섞여 난장판이 된 모습만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했으며, 이야기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위법하며 무엇을 위법하다 할 수 있느냐 식의 답문만 남았다. 학생이 어떠한 의견을 내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듯한 혼란과 정치적 발언을 삼가는 게 미덕인 듯한 착각만 남긴 채로 말이다. … 논점을 보자. 전국에 퍼졌던 대자보의 원인이 단순히 민영화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포함한 우리 현 사회의 전반적인 부조리함에 대한 공감 때문이었는지 말이다.

“대자보 6”,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2014), 98~99쪽.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게시판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보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훼손될 것입니다. …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 정녕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7”,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2014), 2014, 122~123쪽.

“대자보 6”과 “대자보 7”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자보 훼손 이후에도 안녕들 체계의 커뮤니케이션은 계속되었다. 대자보 훼손을 언급하는 대자보도 있었지만 그것이 안녕들 체계의 자기 생산이나 기대 구조에 미친 영향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관심에 비한다

면 적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오히려 안녕들 체계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대자보 훼손보다 학교나 기관에 의해 대자보가 철거되는 사태를 더 자주 커뮤니케이션했다.

또한 대자보 훼손을 자기 관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일베는 대자보 훼손을 ‘대확찐’이라 칭하며, 서로의 대자보 훼손 행위를 인증했다. 그들은 찢어진 대자보 사진과 서로의 경험담을 일베사이트에 게시하며 대자보 훼손을 고양하거나 비난했다. 이것은 대자보 훼손이란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을 위한 자원이 인터넷을 통해 확보됨을 보여준다. 이는 안녕들 현상의 확산과 지속에 SNS나 매스컴이 자원을 공급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대자보를 통해 대자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과 대자보를 훼손하며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모두가 커뮤니케이션일지라도, 그것의 의미마저도 동일할 수는 없다. 대자보를 훼손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안녕들 체계에 대한 ‘아니오’ 외에는 더 복잡한 의미를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려워 정체된다면, 대자보에 대한 대자보 커뮤니케이션은 안녕들 체계의 환경에 놓인 또 다른 사회적 체계들을 자극하며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대자보 훼손은 일베사이트에서 유희나 정치적 의사표현이란 의미로만 수용될 뿐, 그 경계 너머 다른 사회적 체계와 커뮤니케이션하기엔 금방 의미의 빈약에 부닥치고 만다.

반면 안녕들 체계는 대자보를 ‘나의 안녕하지 않음’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매체로서 의미를 일반화하면서, 20대를 넘어 성매매 여성, 성소수자, 여성, 중앙대 청소부, 철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부당 해고된 강사와 노동자, 장애인, 노무사, 중·고등학생(〈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2014, 372, 385, 413, 354, 292, 324~326, 331~332, 339~340, 345~347, 461쪽) 등 다양한 영역의 ‘안녕하지 않음’을 사회에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벽을 변화시켰다. 또한 2014년 1월 이후에 대자보 열풍이 사그라진 뒤에도, 4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자보, 6월 지방선거에 안녕들 대자보를 패러디한 선거 포스터, 12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판한 대자보까지, 안녕들 대자보의 일반화된 의미의 상징은 안녕들 현상에 대한 사회의 기억을 통해 현행화/잠재화를 반복하며 언제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생산하는 매체/형식이 된다.<sup>11)</sup>

10) 이러한 차이는 매스컴 체계의 기능으로부터 기인한다. 루만은 매스컴 체계의 기능을 정보/비정보 코드에 따라 관찰한 정보를 사회에 중복, 확산시키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정보는 중복, 확산됨과 동시에 비정보가 되므로, 매스컴체계는 언제나 새로운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사건과 수용자 사이의 단절을 매개하는 매스컴체계도 그 자신과 수용자와의 단절을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매스컴 체계는 수용자가 기대하리라고 자신이 기대하는 정보를 구성해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대자보 훼손에 관한 매스컴의 관심이 곧 수용자 또는 안녕들 체계의 관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 4. 결론

주현우 대자보 이후 돌풍처럼 일었던 안녕들 현상은, 루만의 표현을 빌린다면, “한 번 커뮤니케이션에 빠져들면, 단순한 영혼의 천국으로 결코 돌아오지 못한다”(Luhmann, 1984/1995, p.150)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루만의 이론을 통해 관찰한다면 안녕들 현상은 한 장의 대자보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 대자보를 읽고 자신의 대자보를 통해 사회에게 안녕하지 않다고 커뮤니케이션한 많은 대자보들로부터 출발한다. 그러한 대자보들은 무수한 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진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도무지 끝맺어질 수 없다(Luhmann, 1997/2012, 174쪽).

루만의 체계, 커뮤니케이션, 매체 이론을 통한 안녕들 현상 분석은 루만 이론의 복잡함 때문에, 마치 루만이란 이름의 동일성 없이는 개념들 사이에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든다. 하지만 루만의 체계 이론은 ‘작동’과 ‘관찰’로 요약될 수 있을 만큼 내적 일관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 커뮤니케이션, 매체 모두 관찰에 의해 구별된 이것/저것 중 지칭된 한 면이다.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대상과 주제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고 해서 의미가 자의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그보다 관찰 개념은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맹점이 모든 관찰에 내재함을 드러낸다. 맹점은 관찰의 구별이고, 그것은 이차 관찰을 통해 가능해진다.

크네어(Kneer, 1996; 정성훈, 2009a, 재인용)는 관찰 개념과 비판 개념의 관련성을 언급하며, 비판은 “한계를 긋는 것, 차이들을 설정하는 것, 그래서 구별들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관찰들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하버마스는 루만의 체계 이론에 대해 사회공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루만 이론의 비판적 능력에 회의적이었지만, 이 논문은 루만의 이론을 통해 안녕들 체계를 분석하며 그것의 비판적 능력을 언급했다고 본다. 이는 대자보 훼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이 가진 의미의 빈약함, ‘아니오’만을 동어 반복할 뿐인 훼손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지적했다. 대자보 훼손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찰에 대한 맹점을 후속 커뮤니케이션과의 연결을 통한 이차 관찰을 통해 비판한 것이다.

어떤 구별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러한 개개의 관찰들 자체는 무엇을 볼 수 없으며, 그 관찰들은 어디에서 맹점을 가지고, 어떻게 역설을 비가시화하는지 등에 대한 비판의 가

11) 대자보가 안녕들 현상 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매체란 점에서 세월호 참사, 6.4지방선거, 최경환 경제부총리 관련 대자보가 안녕들 대자보로부터 의미가 현행화된 것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안녕들 현상 이전에는 마스크가 대학가의 대자보를 정보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세 대자보에 대한 언론보도는 안녕들 현상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능성이 루만의 이론을 통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관찰의 맹점을 관찰하는 나의 관찰 역시도 맹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즉 일차 관찰에 대한 이차 관찰 또한 맹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루만의 이론은 자신에 대한 계몽 역시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관찰을 통한 비판 가능성에 최종 지점은 없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는, 안녕들 체계와 사회의 다른 체계들 사이에서 발생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안녕들 체계는 마스크 체계뿐만 아니라 정치 체계, 교육 체계로부터도 관찰되었다. 대표적으로는 2013년 12월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몇몇 대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자보를 철거하면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즉, 사회적 체계와 사회적 체계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더 심층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무규 (2012). 소통을 위한 성찰: 체계이론의 관점으로 살펴본 성찰적 커뮤니케이션 이론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8, 178-200.
- 김무규 (2013). 차이의 관찰: 체계 이론적 뉴미디어 개념. <인문언어>, 15권 2호, 161-184.
- 김민하 (2014). '안녕들하십니까'의 시대정신. <황해문화>, 82, 232-248.
- 김성재 (2005). <체계이론과 커뮤니케이션: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노진철 (2000). 루만의 자기준거적 체계이론과 성찰적 현실진단. <과학사상>, 35호, 195-218.
- 노진철 (2009).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본 광우병 공포와 무지의 위험소통. <경제와 사회>, 84호, 겨울호, 158-182.
- 문정환 (2009). 루만의 위험사회론으로 본 2008년 인간광우병(CJD) 파동.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년 1호, 1043-1054.
- 밀사 (2014). '안녕들 하십니까', 그리고 여성. <여성이론>, 통권 30호, 198-212.
- 박경철 (2014). 만평의 소재로써 "안녕들 하십니까?"이 사회현상 분석을 통한 만화의 역할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4, 167-195.
- 서영조 (2013). 자기 생산체계로서의 정치체계: 루만의 새로운 정치이해. <사회와 철학>, 25집, 263-304.
-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2014). <안녕들 하십니까?: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자보들>. 파주: 5월의 봄.
- 양승목 (2009). <한국 언론학 연구 50년 개관>.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및 세미나.
- 이동신·손순덕 (1988). 대학생의 집단행동과 대자보, 유언비어, 지하간행물에 대한 공신력 연구. <한국언론학보>, 23, 49-81.
- 이철 (2011). 구조/행위 대립 극복으로서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한국사회학>, 45권 5호, 143-167.
- 이철 (2013). (작동하는) 사회의 (관찰하는) 사회: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의 사회'의 이론적 함의들. <한국사회학>, 47집 5호, 35-71.
- 이화영 (2014). 벽과 창을 넘어 광장으로: 안녕들 하십니까를 통해 본 언어-미디어의 저항 가능성. <플랫폼>, 44, 54-60.
- 장춘익 (2013). 현대사회에서의 합리성-루만의 사회 합리성 개념에 관하여. <사회와 철학>, 25호, 169-202.
- 장춘익 (2014). '자기지시적 체계'에서 '자기지시Selbstreferenz'란 무엇을 뜻하는가?: 루만의 이론의 한 핵심어에 대하여. <철학연구>, 107권, 141-172.
- 정성훈 (2009a). <루만의 다차원적 체계이론과 현대사회 진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정성훈 (2009b). 루만(N. Luhmann)과 하버마스(J. Habermas)의 대립구도에 관한 하나의 이해. <진보평론>, 40호, 여름호, 237-259.

- 정성훈 (2013). 사회의 분화된 합리성과 개인의 유일무이한 비합리성. <사회와 철학>, 25호, 135-168.
- 주현우 (2014). 안녕들 하십니까? 아니요, 안녕하지 못합니다! <신천문학>, 113, 394-403.
- Berghaus, M. (2011). *Luhmann leicht gemacht: Eine Einführung in die Systemtheorie*. Böhlau Verlag GmbH & Cie, Köln Weimar Wien. 이철 (역) (2012). <쉽게 읽는 루만>. 파주: 한울.
- Durkheim, E. (1892).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Free press. 윤병철(역) (2001).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들>. 서울: 새물결.
- Habermas, J. (1981). *Theories des kommunikativen Handelns*. Suhrkamp Verlag. 장춘익(역) (2006). <의사소통행위이론> 전2권. 파주: 나남.
- Kneer, G. (1996). *Rationalisierung, Disziplinierung und Differenzierung*. Leipzig: Westdeutscher Verlag.
- Kneer, G., & Nassehi, A. (2000). *Niklas Luhmann Theorie sozialer Systeme*. W.Fink. 정성훈(역) (2008).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 서울: 갈무리.
- Luhmann, N. (1981). *Politische Theorie im Wohlfahrtsstaat*. Günter Olzog Verlag. 김종길(역) (2001). <복지국가의 정치이론>. 서울: 일신사.
- Luhmann, N. (1984).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M.: Suhrkamp.
- Luhmann, N. (1993). *Das Recht der Gesellschaft*. Frankfurt/M: Suhrkamp. 윤재왕(역) (2013). <사회의 법>. 서울: 새물결.
- Luhmann, N. (1995). Social systems (Bednarz, John & Baecker, Dirk, Tran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4).
- Luhmann, N. (1997).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M: Suhrkamp. 장춘익(역) (2012). <사회의 사회> 전2권. 서울: 새물결.
- Luhmann, N., & Fuchs, P. (1989). 말하기와 침묵하기. 박술(편역) (2014). <말하기와 침묵하기>. 서울: 문학과 지성사.
- Merten, K. (1976). Reflexivität als Grundbegriff der Kommunikationsforschung. *Pulizistik*, 21, 171-179.

## 참고기사

- 조은혜 (2013. 12. 30). [‘안녕들’ 대자보 주인공 인터뷰] (11) 성공회대 조은혜씨.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302211565&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302211565&code=940100)
- 한윤정 (2013. 12. 22). [아침을 열며] 함부로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 경남도민일보 (2013. 12. 18). ‘나와 다르면 약’ 대자보 훼손, 욕설 잇따라. URL: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399167646692650002>
- 광주일보 (2014. 1. 23) ‘안녕들~’. URL: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90402800516124087>
- 국민일보 (2013. 12. 19) “짖는 행동도 소통” 한성대 ‘안녕들’ 대자보 훼손 영상 찍은 ‘일베’의 항변. URL: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863019>

&cp=nv

뉴스1 (2013. 12. 27). “거짓·루머 적은 ‘안녕들’ 대자보, 찢는 것도 의사표현.”

URL:<http://news1.kr/articles/1469883>

뉴스y (2013. 12. 21) ‘안녕들 하십니까’ 신드롬, 원인은?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2&aid=000004098>

머니투데이 (2013. 12. 17).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학생은 노동당원…누리꾼 갑론을박.

URL:<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21713224576052>

아시아경제 (2013. 12. 20). 성매매 여성의 “안녕들하십니까” 갑론을박. URL: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2201122414806>

오마이뉴스 (2013. 12. 18), ‘안녕’ 대자보 찢고 불태우던 일베, 논리적 반박 개시?

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8409](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8409)

조선일보 (2013. 12. 14).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전제 자체가 틀렸는데 선동만…” 이런 글에  
몰리는 대학생들,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4/2013121400947.html?Dep0=twitter](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4/2013121400947.html?Dep0=twitter)

조선일보 (2013. 12. 17). ‘안녕들하십니까’ 열풍 속 고대 첫 반박 대자보 "이게 정의인가?"

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7/2013121701886](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7/2013121701886)

중앙일보 (2013. 12. 21).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100개 키워드 분석.

URL:[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452975&cloc=olink|article|default](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452975&cloc=olink|article|default)

중앙일보 (2013, 12, 27), [우리말 바꾸기] “안녕들 하십니까”의 ‘들’ 배려 의미.

URL:[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495838&cloc=olink|article|default](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495838&cloc=olink|article|default)

한겨레 (2013, 12, 24). 첫 대자보 불인 주현우씨 “반응 이렇게 뜨거울 줄…”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213557>

환경일보 (2013. 12. 19). 대학생 10명 중 7명 “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URL:<http://www.hkbs.co.kr/?m=bbs&bid=envplus1&uid=284541>

투고일자: 2015. 01. 31 게재확정일자: 2015. 05. 22 최종수정일자: 2015. 05. 26.

# Repertoire of Selection and Communication of Refusal

“Annyeongdeul Hasipnikka?” and Communication Theory of Niklas Luhmann

## **Young-Bin Kim**

Doctoral Studen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Hye-Kyoung Han**

Professo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Moo-Kyu Kim**

Associate Professo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ccount for the so-called “Annyeongdeul Hasipnikka?” communication in terms of Niklas Luhmann’s communication theory. The communication theory of Niklas Luhmann which i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system theory is, despite its complexity, effective to shed light on many unique communicative phenomena. To understand the thematic diversity and ceaseless conjunction as the obtrusive characteristics of the “Annyeongdeul Hasipnikka?” communication the adoption of the system-theoretical communication theory is required. Unlike Habermas’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highlighting the consensus as decisive goal of communication, Luhmann maintains that the proliferation through diversification and persistence of communication even through refusal are also the communicative elements for its operation. This paper tries to demonstrate the uniqueness of “Annyeongdeul Hasipnikka?” communication by virtue of the system-theoretical perspective.

**KEYWORDS** Annyeongdeul Hasipnikka?, hand-written poster, Niklas Luhmann, System Theory, communication